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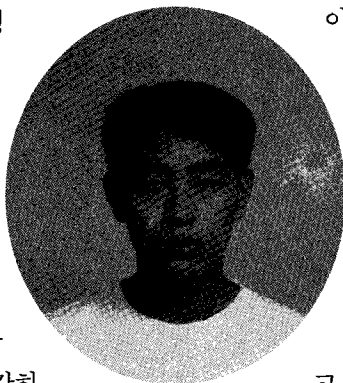
오직 포장만을 위해

포장디자인 분야 진출 희망

전현덕 / 경북과학대학 패키징계열1년

제 4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을 수상한 경북과학대 학 전현덕 군은 “한용교포장 인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상으로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꿈은 대나무처럼 오직 포장의 길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제가 경북과학대학 포장과에 들어온 것은 ‘포장’이라는 생소함에 호감을 느꼈고, 더욱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선택했습니다”라는 전현덕 군은 현재 8명으로 이루어진 ‘포연사’(포장을 연구하는 사람들)라는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와 각종 실험을 통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전현덕 군은 “아직은 포장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연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포장산업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외국 기술



이나 제품을 도입하기보다는 앞선 기술로 우리나라가 포장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저 또한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피력했다.

포장 디자인 분야에서 앞으로 제품 디자인 분야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

다. “현재 포장산업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는 관련 대학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 실습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이 중요하게 작용함에도 실험 자료나 장비 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포장 관련 업체에 나가 미리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피력했다.

‘하루 하루를 후회 없이 살자’는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전현덕 학생은 아직은 배움을 쌓아가며 포장산업을 깊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포장산업의 미래가 밝음을 느낄 수 있었다. □

권해진 기자